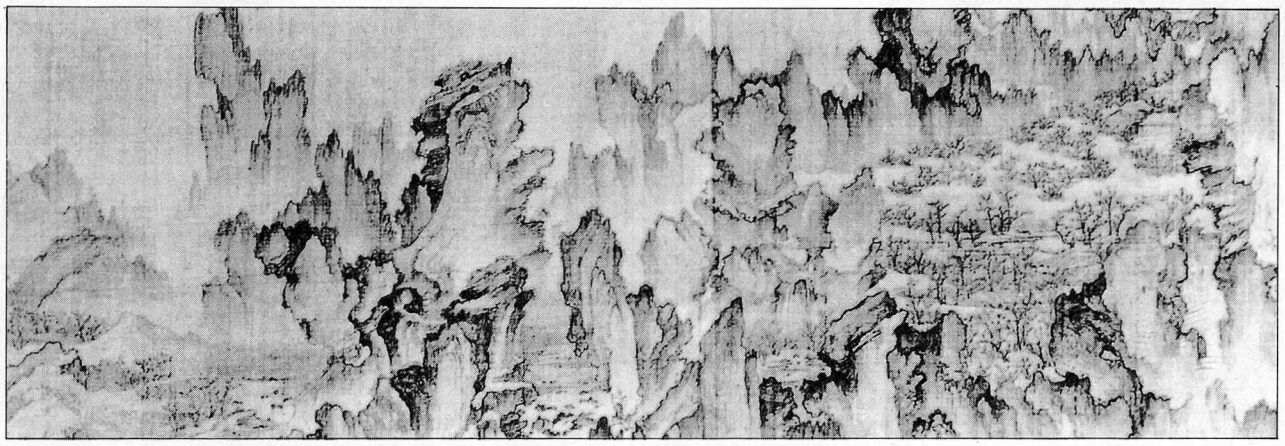
俗世의 얽매임 벗어난 神仙世界

한국 최고의 명화 「夢遊桃源図」에 붙여

許英桓
성신여대 교수 · 동양미술사



安平大君의 꿈을 화폭에 옮긴 安堅의 「夢遊桃源図」(38.7×106.2cm 견본 묵화담채)

많은 桃源図 가운데서도
安堅의 「몽유도원도」는 구도와
화법에서 가장 탁월하다.
그러나 이 한국 최고의 名画는
섭섭하게도 일본 天理大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제 책 속에서나마
늘 보고 즐기게 되었으니
그 아니 즐거우랴.

『바다 가운데에는 神仙들이 산다는 蓬萊山과 瀛州가 있다고 일찌기 들어왔지만, 파도 거칠고 길 아득하여 마음으로만 그리워하였네. 또한 하늘나라에는 참 神仙들이 살고 있다고 들었건만, 날아오를 수 없어서 가 보질 못하였네. 오호라, 시끄러운 티끌 세상에 갇혀 답답한 이 몸, 빽빽하던 뒤 귀밑머리 어느덧 헤성하여졌구나. 桃源을 생각하니 아득하기만 하여, 漁夫 한번 다녀온 뒤로 다시 찾을 길 없네. 韓昌黎같은 達人도 의심을 풀지 못하였거늘, 떠들썩하기만 한 俗人들이야 어찌 알 수 있을까. 지체 높으신 분 신묘하게도 氣를 하나로 모으사, 행함도 없고 마음에 거리낌도 없이 본성을 곱게 지니셨네. 노을을 먹거나 밤 이슬을 마실 필요도 없이, 답답하고 누추한 티끌 세상을 훌쩍 뛰어 넘으셨네. 영혼이 동굴의 문 안으로 훨씬 날아 들어가, 복숭아꽃 가득한 마을을 고루 유람하셨네. 산속 선비 역시 王子晋 같으신 분임을 알고,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말을 은근히 전하여 드렸다네. 구름 걷히고 햇살 퍼지니 마음 저절로 한가롭고, 흐르는 물과 푸른 산은 인간세상이 아닐세. 돌아와서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가리키듯 하시니, 그 풍경이 그대로 비단 안에 담겼구나. 그림을 펴 보고 글을 읽으니 정신이 그냥 통하여, 이 몸이 그대로 桃源에 있는 듯하구나. 어찌하면 俗世의 얽매임을 벗어나, 짚신과 지팡이로 평생을 神仙世界에서 노닐 수 있을까.』

安堅이 그린 「몽유도원도」를 보고서 감탄한 鄭麟趾가 쓴 贊詩(1447)다.

夢遊桃源圖(38.7×106.2cm, 견본담채)가 그려져 있는 두루마리에는 安平大君(1418~1453)의 序詩와 跋文을 포함하여 22명 · 23편의 글이 실려 있다.

찬시는 모두 아름답고 격이 높은 名詩들이며, 찾아가 노닐고 싶은 桃源을 잘 묘사하고 있다. 桃源의 모습을 안평대군이 쓴 발문을 통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내가 仁叟와 함께 말을 채찍질하여 찾아들어가는데, 절벽은 깎아지른 듯 우뚝하고 숲은 빽빽하고 울창하였으며, 시냇물은 굽이쳐 흐르고, 길은 구불구불 백번이나 꺾이어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모를 지경이었다. 골짜기를 들어가니 洞天이 탁 트여 넓이가 2, 3리 정도 되어 보였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구름과 안개가 자욱이 서려 있고, 멀고 가까운 곳 복숭아나무 숲에는 햇빛이 비쳐 연기 같은 노을이 일고 있었다. 그리고 대나무 숲속에는 띠풀집이 있는데 사립문이 반쯤 열려 있고, 흙으로 만든 섬들은 거의 다 부스러져 있으며, 닭이나 개 · 소 · 말 따위는 없었다. 마을 앞을 흐르는 시내에는 오직 조각배 한 척이 물결따라 흔들리고 있을 뿐이어서 그 쓸쓸한 정경이 마치 神仙 사는 곳인 듯하였다.』

발문에서 알 수 있듯이 안평대군이 정묘년(1447) 4월20일 밤 꿈에 보고 노닐던 桃源을 安堅으로 하여금 그리게 하였고, 사흘만에 다 그린 것이 바로 「몽유도원도」이다.

그런데 파라다이스라고 할 桃源은 중국의 대표적인 전원시인이었던 陶潛(호 淵明, 365~427)이 쓴 「桃花源記」의 내용과 관계가 있다.

그리고 桃源을 주제로 한 시와 그림은 중국 · 일본 · 한국에서 많은 예술가들에 의하여 제작되었다.

중국에서는 吳道子 · 劉松年 · 錢選 · 趙孟頫 · 沈周 · 文嘉 · 石濤 등이, 한국에서는 姜世晃 · 張承業 · 安中植 · 盧壽鉉 · 卞寬植 등이 그림으로 그렸다.

물론 많은 桃源圖(또는 武陵桃源圖 · 武陵圖)가운데에서도 安堅의 「몽유도원도」는 구도와 화법에서 탁월하다. 「몽유도원도」의 회화사적 의의를 밝히기 전에 먼저 安堅에 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申叔舟의 「保閑齋集」 卷14 畫記의 내용에서 발췌한 것이다.

『安堅의 字는 可度, 小字는 得守, 本은 池谷이다. 1445년엔 이미 正4品인 護軍이 되었다. 사람됨이 총민하고 精博하였고, 옛그림을 많이 보아 그 요체를 얻고 大家들의 좋은 점을 모아 절충하여 스스로의 화풍을 세웠다. 못 그리는 그림이 없었지만 산수화를 특히 잘 그렸다. 그와 필적할만한 사람은 없었다. 匪懈堂(안평대군)과는 이미 오래전부터 陪遊하였다. 안평대군은 그의 그림을 30점이나 소장하고 있다. 그림은 山水 · 墨竹 · 墨梅 · 長松 · 蘆雁 등을 그린 것이다.』

이처럼 여러 그림을 잘 그렸고, 특히 산수화를 잘 그렸던 安堅은 산수화풍은 北宋의 郭熙(1001?~1090?)화풍을 따랐다. 郭熙가 1072년에 그린 早春圖와 溪山秋霜圖를 「몽유도원도」와 비교해 보면 安堅이 조선초에 유행한 북송의 李成 · 郭熙화풍을 어떻게 소화하였는가를 잘 알 수 있다.

安교수는 「몽유도원도」가 郭熙화풍을 따르면서도 얼마나 독창적이었나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安堅은 자신의 화풍을 이뤘다. 「몽유도원도」는 전체적으로 볼 때 보다 분명하고 적극적인 새 창작의 세계를 두드러지게 드러낸다. 왼편 하단부에서 오른편 상단부로 대각선을 따라 펼쳐진 효율적이고도 치밀한 포치, 공간의 기술적인 표현, 高遠과 平遠의 대조를 통한 웅장감의 고조, 환상세계의 교묘한 구현, 세부묘사의 정교함과 우수함,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서로 어울려 하나의 조화롭고 웅장한 심포니를 연출해 내는 듯하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적막하고 고요한 분위기가 그러한 형태상의 웅장함과 어우러져 보는 이에게 더욱 기이함을 느끼게 한다. 아마도 이러한 점들이 「몽유도원도」를 유별나고 위대한 것으로 존재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렇게 유명한 우리의 국보는 지금 섭섭하게도 일본의 天理大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한때는 일본의 국보였다가 지금은 중요문화재로 되어 있다. 물론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진열 · 전시되어 있진 않다.

그런데 그런 「몽유도원도」가 지난해 8월에 서울의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꼭 20일동안 수많은 한국인들에게 찬란한 모습을 보인 후 다시 꿈처럼 일본으로 돌아가버렸던 것이다.

국립중앙박물관 韓炳三관장의 '배주고 뱃속 빌어먹는다'는 말대로, 멀쩡한 우리의 문화재를 애걸하면서 빌어왔을 때의 쓰라렸던 마음을 우리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韓관장 · 安교수 · 李炳漢교수와 출판사(예경산업사)가 뜻을 모아 한국 최고의 명화인 「몽유도원도」에 관한 책을 내기로 하였다. 한달 전에 나온 호화양장의 「몽유도원도」는 타블로이드판 234면의 圖錄이다. 발간사는 韓관장, 해설은 安교수, 찬시의 번역은 李교수가 맡았다.

보기 드물게 잘 만들어진 책을 보니 지난해 8월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2시간 이상이나 「몽유도원도」를 보면서 느꼈던 감격이 되살아나는 듯하다.

郭熙가 그의 「山水訓」에서 말한대로 可行 · 可望 · 可遊 · 可居의 山水인 桃源을 이제부터는 책 속에서나마 늘 보고 즐기게 되었으니 그 아니 즐거우랴.